

[Press Release] 총 10쪽

《Solidarity: 표류의 어려움》



-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3주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오유경 개인전
- 조각과 드로잉, 영상 작품 총 16점의 작업이 에이라운지 1층과 2층 공간에 나누어 전시
- 기하학적이고 기계적인 형태를 하고 있으나 연대적 분위기와 시적인 섬세함을 가지는 작품
- 군집에서의 개별 인간의 역할과 삶을 성찰하고, 상호 의존과 연대의 감각을 마주하는 전시

○ 전시 개요

전시 제목: 《Solidarity: 표류의 어려움》

참여작가: 오유경

기획: 이은미

일정: 2025년 2월 5일(수) - 2월 25일(화)

장소: 에이라운지(A-Lounge Contemporary)

(문의: 02-395-8135)

개관시간: 화-토, 11 a.m. - 6 p.m. (일, 월 휴관)

입장료: 무료

웹사이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김다혜 책임 디렉터 (hye@a-lounge.kr, 02-395-8135)

○전시 내용

에이라운지는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오유경의 개인전 《Solidarity: 표류의 어려움》을 선보인다. 전시작은 총 16점으로 조각과 드로잉, 영상 작품으로 구성된다. 그의 작품은 기하학적이고 기계적인 어휘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연대적 분위기와 시적인 섬세함을 가진다. 본 전시를 통해 인간이 내부적, 내재적으로 성취한 숨겨져 있는 조화를 시적으로 환기시키며 상호 의존성에 대해 참여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층적이고 은유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군집에서의 개별 인간의 역할과 삶을 성찰하고, 타인의 삶에 일부가 되는 경험을 이해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 작가 소개 및 주요 약력

오유경 (b.1979)

오유경(b. 1979)의 작품은 주체와 타인, 더 넓게는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 그리고 인과관계를 표현한다. 상호작용과 순환은 그가 이 세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비디오, 조각,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된다. “어떤 존재도, 사회도 혼자 저절로 서 있는 것은 없으며 끝없는 사슬의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그의 작품 속 개체들의 결합과 중첩은 우리 삶을 구성하는 관계, 사회, 시스템 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다. 조각 작품에 사용된 아크릴이나 유리구슬은 작품을 둘러싼 환경이 투영되거나 왜곡되어 보여져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자 자신과 주위 환경 간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한편 <소금 도시>와 같은 비디오 작업이나 드로잉 작업에서는 무너짐과 복원, 원인과 결과, 사건의 발생과 결과, 흔적 등의 과정을 탐구한다.

작가는 2002 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환경조각학과 학사 학위를, 2006 년, 2007 년에는 각각 파리 8 대학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석사, 조형예술학(스튜디오: 주세페 페노네) 국가학위를 받았다. 주세페 페노네 스튜디오에서 공부 후 2008 년에는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ENSBA)를 졸업하였다. 플레이스막 2, 서울(2021); 아트소향, 부산(2020); 첩터투, 서울(2015); OCI 미술관, 서울(2011); 노암갤러리, 서울(2009); 주불한국문화원, 파리(2007)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참여한 주요 단체전으로는 «강원국제 트리엔날레 2024: 아래로부터의 생태예술», 평창(2024); «추상과 관객», 경남도립미술관, 창원(2024); «에이피 맵 리뷰»,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서울(2022); «훗 우르르 쉬익»,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부산(2017); «Reload-다시 충전하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큐빅하우스, 김해(2016); «조우»,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2015); «Condensation», 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2014) 등 이 있다. 2008 년 프랑스 파리 시떼국제예술 레지던시를 시작으로, 난지창작스튜디오(2009), 인천아트플랫폼(2010),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2012), 경기창작센터(2015) 등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012 년에는 Fondation d'entreprise d'Hermès 아뜰리에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 전시 서문

내가 오유경을 처음 만난 것은 그녀가 아직 파리 보자르에 재학 중이었던 2007년 겨울 즈음이었다. 나는 당시 서울에서 주세페 페노네씨Giuseppe Penone가 참가하는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페노네씨와 전시의 컨셉에 맞는 작품을 선별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엄지 손가락의 지문을 정중앙에 찍고 본인의 지문을 벽 전체로 확장시켜나간 드로잉작품 “Propagazione”을 전시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작품은 높이 5미터에 가로 7미터의 넓은 벽 정중앙에 드로잉을 고정시켜 자신의 지문을 나무의 나이테처럼 벽면 가득히 채워야 하는 작업이었기에 젊지 않은 거장에게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페노네씨는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내 제자 중에 믿고 맡길 만한 학생이 딱 한 명 있긴 한데, 그녀가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며칠 뒤, 만난 페노네씨의 어린 제자가 바로 내가 처음 만난 오유경 작가였다. 물론 전시 준비 기간이 짧기도 했지만, 내가 기억하는 당시 오유경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흐트러짐 하나 없는 자세로 사다리에 올라타 묵묵히 작업만 하던 그 뒷모습뿐이다. 덕분에 나는 페노네씨의 같은 작품을 전시할 때마다 오유경 작가를 만나 협업을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오유경 작가의 작품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오랫동안 페노네씨의 제자였다는 점에서 자연친화적이라든가 물질과 물질 혹은 대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성 특히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시공간적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상호연관성에 관한 예술적 탐구는 스승에게 물려받은 그 무엇보다 큰 헤리티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해 왔던 인스탈레이션, 환경 프로젝트, 조각적 구성물 등 안에서 다채롭게 연결된 요소들 간의 다층적인 관계 시스템을 꾸준히 연구해 오는 동안, 오유경의 작품은 지난 몇 년 동안 형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작가가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는 서사적 수준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작가는 활동 초기 고지대, 숲 등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과 인류, 사물들의 상호작용과 심지어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에너지 등에 강하게 매료되었다. 어쩌면 그것은 미술품이 가질 수 있는 기념비적 창조물이나 유토피아적 관점과도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수백 개의 탁구공을 붙여 만든 꿈같은 이라는 작품은 언뜻 보기에는 대단한 규모의 설치물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탁구공의 각 개체들은 특별한 변형이나 위계질서 또는 전체를 떠받치는 축이나 받침대도 없이 각 개체와 이웃하는 다른 개체 간의 상호 의존에 의해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작가의 예술적 관여를 통해 사물과 사물 사이에 새로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물이 본래 가지는 개념을 떠나 전혀 다른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오유경의 의도적 구성이다. 오유경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탁구공, 종이컵, 풍선, 소금 등과 같은 유사성과 동질성을 가진 일상용품이나 최근에는 평생 미싱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미싱공장의 기계들의 부품들을 모두 분리시켜 새로운 형태나 방식으로 조립하거나 기존에 사용했던 크리스탈을 접목하기도 한다. 공존하는 것들과의 관계 또는 부재하는 것들과의 관계를 통해 현존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 양상과도 같은 것이 그녀의 작업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오유경의 조각 작업은 더 이상 형태를 연상시키거나 암시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내재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은유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구조에 더 중점을 둔 형식적 엄격성과 축소된 어휘를,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작업은 시각적 외관에 대한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낭만적인 분위기 대신, 이 투명한 구조는 그녀의 구조화된 우주 내부의 각 요소의 민감한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더 깊고 보이지 않는 숨겨진 사물의 배열을 드러낸다. 겉보기에 기계적이고, 반복적이며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어휘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유경의 작품들은 기술적 정착이라는 산업적이고 비인격적인 성격을 시사하지만, 이미 관찰의 첫 순간에 시詩적이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인간적인 분위기를 일깨워 주는 비기계적인 미묘함을

느낄 수 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자연적 요소들로 조립된 신비로운 조각의 실체는 미지의 영역을 확립하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조직된 체계라기보다는 시적 감성의 우주인 것이다.

작품에 사용된 가공된 물체의 대부분이 기하학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계획된 단단한 구조의 암시가 아니라, 부드러움과 매끄러움의 감각, 유기적인 생동감이 먼저 지각되고 만다. 관람객은 시간을 초월한 행성들이 소리 없이 비행하는 이 무한하고 온전한 우주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무한하고 정의되지 않은 공간에서 영원히 움직이는 물체 사이에 조화를 만들어내는 사물의 명백한 상태로서의 영원히 천천히 멈추지 않고 변화한다는 인상을 준다. 느린 움직임의 평온함은 자연스러운 본질적 실체이며, 이는 어떤 의도도, 어떤 의지나 힘의 개입도 없음을 나타낸다. 이 조용히 변화하는 우주의 모든 요소의 공존은, 유동성과 취약성의 감각을 전달하지만, 동시에, 주어진 자연 현실의 사물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내재적으로 결정된 영속성의 일정한 안정성도 전달한다. 이 거의 신비로운 모호함은 오유경의 작품에 시적인 모호함과 기묘함을 주고 있다. 정확하게 정의된 대부분의 기하학적인 형태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의 모더니즘 운동의 역사에서 주로 알려진 투명성과 명료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모더니즘 운동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발달한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했다. 오유경의 천천히 변화하는 오브제와 설치에서는 구성 요소의 기하학적 특징은 거의 사라지고, 형식주의적인 구조화에 역시 관여를 잃고 있다. 오유경은 오히려 이 헤리티지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인간의 상호 관계에 관한 인류학적 경험의 영역을 향해 재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관점에서 오유경의 작품은 상호적인 관계에 있는 인간의 군집을 모듈 구성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서로를 반사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크리스탈의 구체는 시각적으로 혼동을 일으키거나 뻑뻑이 쌓인 오브제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게 하지 않고 특이한 부드러움을 만들어낸다. 전체 덩어리는 기술 개발로 만든 인위적인 메커니즘이 아닌 보이지 않는 우주 에너지로 움직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유기체를 암시한다. 이는 금속 오브제의 산업적 특성과 전체적인 시각적 모습의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움직임의 효과에 기초한 제로 그룹의 모빌과 공간 설치 작업 전까지 구성주의의 위대한 전통에서부터 바우하우스, 러시아 아방가르드에 이르는 다양한 기술적 실험에서 볼 수 있었던 형식과 형식적인 관계가 주를 이루는) 기하학적인 형상 측면에서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다. 위에 언급된 아방가르드 경향, 운동, 워크숍은 영원한 기술 혁신이 멈출 수 없는 (미학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여겨진) 예술 영역 확장 과정의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 과학과 예술이 역동적으로 공생하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이 유토피아적인 접근방식은 기술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전능한 구원자로 절대화하고 기술 개발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조화를 계획했다. 이 유토피아는 원칙적으로는 해방적이고 인본주의적이지만, 지속 불가능한 기술 개발과 진화의 필요성을 믿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감정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고려하거나 각 특정 인간 군집의 구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삶에 기계적인 비전을 투영하고 인간을 표준화하고 획일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순진한 진화론적인 개념은 기술 혁신과 매체를 탐색하는 작업을 절대화했고 기술적 요소를 예술적인 활동에 편입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찾곤 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에는 선구적이고 혁신적이었을 이러한 업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다소 짜증 나는 역설이야말로 오유경이 예술 작품이 섬세하고 감정적인 감각화의 수단으로서 가지는 기능에 보이는 시적인 관심의 정중앙에 관람객을 데려다 놓는다.

이 감각화 과정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의 관계,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삶과 자연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서로와의 관계를 여러 층위에서 재평가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오유경의 섬세하고 시적인 작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미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확은 느리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물리적인 시간이

A-L

인간이 경험하고 내면화한 삶의 시간으로 탈바꿈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인식이 인간이 구체화하고 경험한 장소(자연적 또는 만들어진 환경)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추상적인 공간을 시, 명상, 모든 인간 군집에 대한 감정적인 개입으로 가득 찬 인류학적 관점에서 구체화된 장소로 변형시키는 것이야말로 오유경의 지능적이고 감각을 자극하는 예술의 중요한 핵심으로 보인다. 이는 오유경이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서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시각적 현상이 가진 내러티브의 기능을 재평가하는 과정이자 인간 집단에 대해 사유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인 관람객을 능동적인 참여자로 바꾸는, 즉 개입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각적 요소에 대한 이 느리고, 매끄럽고, 미묘한 재평가는 모든 형식적 모습에 대한 인식을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연대성에 대한 공감적 사고방식을 제안하는 은유적 관점의 숨겨진 지형의 메신저로 만든다. 함께 있다는 강한 느낌, 가능한 조화롭고 공감적인 공존의 기본 조건으로서 서로에 대한 상호 의존성에 대한 제안은 풍부한 은유적 서사를 드러낸다. 오유경의 이러한 시적 작품은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모든 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와 교류하는 것을 통해 내적인 인간적 성취인 숨겨진 조화를 제안한다. 전체 상호 의존성에서의 이러한 연대적이고 참여적인 교류는 인간 공존의 은유로서 그녀의 조각과 설치물에서 드러난다. 이 상호성을 점점 더 인식하는 과정은 따뜻함, 부드러움, 연대감,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경험을 만드는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오유경의 전시를 천천히 거닐다 보면 상징의 숲을 가로질러 그리로 들어간다.. 무한한 것의 확산력을 지닌 향기도 있다..는 그 어떤 시가 생각난다.

이은미(독립 큐레이터)

○ 대표 작품



바람의 탑 *Pagoda of BARAM*

2025

Crystal ball, metal, wood, mixed media

25 × 60 × 100 cm



맺고 있는 연결 상태 *Being Connected*

2024

Crystal ball, metal, wood, glass, motor, mixed media

50 × 60 × 220 cm



맺고 있는 연결 상태 *Being Connected*

2024

Crystal, wood, metal, mixed object

120 × 120 × 200 cm (Height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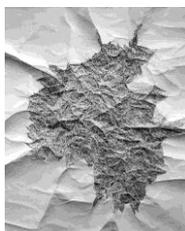


Dreamlike

2011

Ping-Pong Balls

Dimension variable



흔적의 기억 *Memory of Trace*

2021

Pencil drawing on crumpled paper

68 × 73 cm

○ 전시 전경



A-L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 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Seoul